세계기도정보

[스웨덴] 기독교 가정 자녀 2년 이상 격리…부모, 유럽인권법원 제소
[스페인] 복음주의 연맹, “낙태를 기본권으로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야만적 발상”
[멕시코] 중부·동부 폭우로 64명 사망…교회가 긴급 구호에 나서
[동남아시아] ‘온라인 범죄소굴’ 캄보디아·미얀마…”연간 피해 100조원 규모”
[미얀마] 군부, 사가잉 지역 촛불 축제 폭격해 민간인 40명 이상 사망
[프랑스] 복음주의연합, 복음주의자들을 ‘보수 성향·동성애 혐오’로 묘사한 TV 보도 규탄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2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회 폐허 속에도 신앙과 섬김 이어가
[이란] ‘선교 활동’ 기독교인 5명 원심 확정…최대 총 40년형
[모잠비크] 30명 이상 기독교인 참수…ISIS 잔혹 공격
[세계] ‘성경 접근 불가능 지역’ 전 세계 현황 다룬 보고서 공개
[일본] ‘자살 절벽’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사역으로 1,100명 새 삶 얻어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정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5. 10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희생 위에 세워지는 교회.

10월 9일 목요일, 코스타리카에서 돌아와 다음날 이곳을 방문한 부산행복한 교회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공항으로 모셔다드리고, 다음날 토요일 미국으로 출국을 준비한다. 9월 치아파스를 돌아다니며 영화 상영을 하며, 곳곳에 전기 상태가 좋지 않아,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영화를 상영하다 보니 발전기의 소음이 너무 심해 어려움을 겪었었다. 또 한국에서 구매한 중고 빔프로젝터의 밝기가 약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영화 상영을 늦추었던 기억이 있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 필요를 이야기했더니 기꺼이 물품들을 헌물 받아 주셨다. 물품 수령을 위해 미국 서부 Sacramento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데만 3박 4일이다. 아내가 나에게 말한다: "여보, 가는 길에 포틀랜드에도 가요. 장로님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라도 해주고 와요." 3박 4일에 18시간의 시간이 더해졌다. 선교 물품을 받은 후 다시 동부 Tennessee로 다시 3박 4일을 운전해 하비 목사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신 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받아서 다시 집까지 3박 4일을 운전해 와야 한다. 아내의 요청에 "그래요 그렇게 해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울컥한다. 미국에서 돌아오면 또 바로 치아파스로 먼 길을 운전해 가야 한다.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진짜 죽겠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는데, 아내는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희생 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나는 늘 스승 같은 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지금이 그런가 보다.

지금 나는 이제 서부의 방문을 끝내고 선교 물품을 수령해서 동부로 이동하고 있다. 매일 1천 킬로미터씩 운전을 하며 쉼을 가진다.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나의 동역자들로부터 사진과 동영상이 나에게 도착한다. "선교사님, 어제는 이곳에서 영화 상영을 하며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인식하고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저곳으로 갈 겁니다." 스승 같은 제자들의 문자를 보며, 깨닫는다: "그래, 나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의 헌신 위에 나와 같은 나의 동역자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달려가고 있다. 천석아 힘들다고 울지 마!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닭보다 나은 나

10월 7일 화요일, 어제 코스타리카에 도착해 친구 까를로스 목사의 누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오늘은 리몽 지역 비라인으로 하비 목사를 만나러 떠난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사택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너무 궁금하다. 점심 식사를 준비한 채 우리를 기다리던 하비 목사와 그의 아내 바네사 사모가 반갑게 우리를 맞이하기 전 먼저 크고 깨끗한 집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다. 반갑게 하비 내외와 그의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택을 구경했다. 하비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주지사가 사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지사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너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목사님, 정말 행복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 목사님 사택이 더 크고 예쁩니다.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사택 주위를 아이들과 둘러보고 오니, 아내가 하비 목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목사님, 10여 년 전에 그 전 사택에서 저 맞은편 닭장을 보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과거 하비 목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안 한 미국인 선교사가 그를 돕기 위해 집 맞은편에 닭장을 만들어 주고 또 그곳에 닭들을 구매해 주었다. 한 날 아침 하비가 그 전 사택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의 창문 너머 보이는 닭장을 보며 하나님께 말했었다: "하나님, 저 닭들이 사는 곳이 제가 사는 곳보다 좋네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한다: "하비야, 저 하늘의 나는 새를 보렴, 그리고 저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렴 네가 저 새보다 그리고 저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단다." 어느 날 하비 목사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었다. 나는 잊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아내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나 보다. 아내가 말한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10년이 지나 정말 멋진 사택이 완성되었네요." 하비도 완공된 사택을 보며 그때를 떠올렸다며 말한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모님, 과거 사택보다 모든 것이 두 배입니다. 나무집은 콘크리트 집이 되었고, 과거 방이 두 개였는데 지금은 네 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모님 보세요. 제가 저 창문으로 닭장을 보고 말했는데, 지금 이 사택이 과거 제가 사택에서 닭장을 바라보았던 그 방향의 중앙에 건축되었습니다." 10년의 시간… 누구에겐 기다림의 시간이며, 또한 성취의 시간이다. 같이 점심을 먹으며 먼저 바네사 사모에게 말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제일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소망을 들으시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족을 위한 멋진 성전을 지어 주셨으니, 이제 이웃과 열방 공동체를 위해 새로운 성전을 하비 목사님의 소망을 따라 지어 주실 겁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길 같이 기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묻는다: "아니 선교사님, 내년 3월 말까지 어떻게 본당을 건축합니까? 재정은 있으세요?… 도대체 얼마의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나는 늘 똑같이 그들에게 대답한다: "제가 사역을 하며 가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둘째, 이 일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 두 질문에 '예'라고 대답이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니까요."

10월 기도제목:

1. 10월 25일부터 있을 쿠바 방문에 크리스토퍼 목사와 함께하는 이새 형제가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의 심장이 뜨거워지며 열방을 품는 일꾼이 되도록.
2. 11월 7~8일에 치아파스 팔렌케에서 진행되는 전도 훈련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무장될 수 있도록.
3. 11월 21~22일 치아파스 팔렌케에서 진행될 전도 후속 조치 프로그램으로 15주 새가족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